

## ▶ 내신 기출 문학 비상-상편 ◀

### 1. 문학의 본질

- (1) 모란이 피기까지는 (66문제)-----1쪽
- (2) 수오재기 (40문제)-----24쪽
- (3) 산속에서 (28문제)-----43쪽

###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 (1) 가는 길 (41문제)-----57쪽
- (2)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51문제)-----73쪽
- (3) 눈물 (38문제)-----112쪽
- (4)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40문제)-----126쪽
- (5) 참새 (13문제)-----157쪽
- (6) 꽃 /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41문제)-169쪽
- (7) 파수꾼 (40문제)-----190쪽
- (8) 납작납작 -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45문제)-----221쪽
- (9) 메밀꽃 필 무렵 (26문제)-----242쪽

### 3. 한국 문학의 성격

- (1) 정읍사 (41문제)-----262쪽

◆빠른 전체 정답-----278쪽

◆해설-----281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모란이 피기까지는” 분석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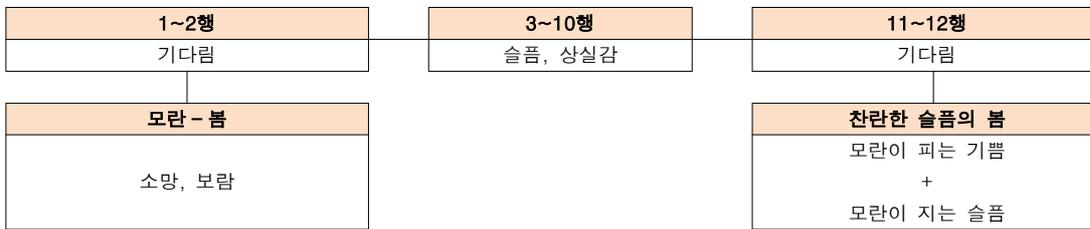
##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순수시	성격	유미적, 탐미적, 낭만적, 상징적
제재	‘모란’의 개화와 낙화		
주제	소망에 대한 바람과 기다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미 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함.</li> <li>• 역설과 도치의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경(아름다움에의 도취와 그것의 덧없음에 대한 슬픔)을 잘 보여 줌.</li> <li>•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를 통해 문학적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표현함.</li> </ul>		

## ◆구성

1~2행	3~10행	11~12행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모란’이 시들어 사라진 후 슬픔과 상실감을/를 느낌.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 1. 작품의 시상 전개



### 2. 시어의 상징적 의미

‘모란’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소망, 희망, 보람, 삶의 가치 등)
‘봄’	소망의 대상인 ‘모란’이 피는 시기, 소망이 이루어지는 계절
‘보람’	‘모란’이 피었을 때 느끼는 기쁨
‘삼백예순 날’	슬픔의 깊이, 정감의 깊이
‘찬란한 슬픔의 봄’	‘모란’이 피는 기쁨과 ‘모란’이 지는 슬픔이 복합되어 있는 상황

모란이 피기까지는 [소망의 대상인 ‘모란’이 피는 시기, 소망이 이루어지는 계절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 소망, 보람, 삶의 가치 등]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화자의 기다림이 숙명적임을 암시함. △: 부드러운 어감, 섬세한 정서 표현

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  
 ‘모란’이 낙화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함.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삶의 보람과 의미를 잃은 설움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봄이 지나간 뒤, 여름의 무더움 → 봄의 상실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모란’이 피었을 때의 기쁨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피었을 때의 보람을 잃고, 화자의 소망도 무너짐.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모란’이 지는 것을 인생 전체를 잃는 것과 같이 생각함. → 과장법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기다림의 나날을 강조하는 표현: 서글픈 정감의 깊이를 드러냄.

모란이 피기까지는  
 여전히 화자의 숙명적 기다림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모란’이 피는 기쁨과 ‘모란’이 지는 슬픔이 복합됨. → 역설법

\*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를 통해 문학적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표현함.

...→ 1~2행: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 3~10행: ‘모란’이 시들어 사라진 후 슬픔과 상실감을 느낌.

...→ 11~12행: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 “모란이 피기까지는” 교과서 문제 모음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모란’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정리해 보자. 이를 바탕으로 화자에게 ‘모란’이란 어떤 의미인지 말해 보자.

1~2행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	화자에게 ‘모란’의 의미
3~10행	‘모란’이 시들어 사라진 후 슬픔과 상실감을 느낌.		간절한 소망의 대상
11~12행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2. 이 작품의 어떤 요인들이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 ‘-르 테요’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 ‘모란’이라는 말을 되풀이하여 일정한 리듬을 형성하였다
- 수미 상관 구조를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운율을 형성하였다.
- 두 시행이 한 단락을 이루어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리듬감을 부여하였다.
- ‘ㄴ, ㄹ, ㅁ, ㅇ’의 율림소리를 많이 사용하여, 물이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의 운율을 형성하였다

3. 화자가 다음과 같은 모순된 감정을 보인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

- ‘찬란한 슬픔의 봄’**
- 화자가 모순된 감정을 보인 이유: ‘봄’은 화자에게 소망이자 보람인 ‘모란’이 피어나는 기쁨의 계절이지만, 동시에 ‘모란’이 질 것이라는 예감 때문에 슬픈 계절이기도 하다. 화자가 ‘찬란한 슬픔의 봄’과 같이 모순된 감정을 보인 이유는 이처럼 절망과 희망의 감정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4.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내용과 서술 방식 면에서 살펴보자.

[앞부분 줄거리] ‘나’는 상해에서 늙은 거지 하나가 여러 전장(錢莊)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갖고 있는 은전의 진위를 확인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거지는 전장 사람의 대답을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자신이 가진 동전이 은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무척 기뻐하며 황망히 달아난다. ‘나’는 벽돌담 밑에서 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에게 다가갈 말을 건넨다.

“누가 그렇게 많이 도와줍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내 말소리에 움찔하면서 손을 가슴에 숨겼다. 그리고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달아나려고 했다.  
 “염려 마십시오, 빼앗아 가지 않소.”  
 하고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 하였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는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저 같은 늙은이에게 1원짜리를 줍니까? 각전(角錢) 한 닢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동전 한 닢 주시는 분도 백에 한 분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한 푼 한 푼 얻은 돈에서 몇 닢씩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 마흔여덟 닢을 각전 닢과 바꾸었습니다. 이러기를 여섯 번을 하여 겨우 이 귀한 ‘대양[大洋]’ 한 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얻느라고 여섯 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그 돈을 만들었던 말ियो? 그 돈으로 무얼 하려고?”  
 하고 물었다.  
 그는 다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이 돈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 피천득, 「은전 한 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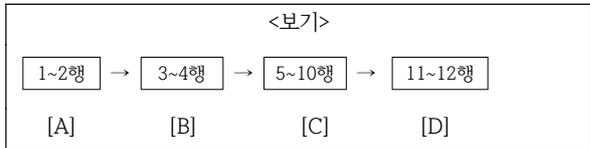
- 내용 면에서: 남들에게는 하찮은 소망일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쓴 거지의 집념과 의지가 감동을 주었다.
- 서술 방식 면에서: 거지의 행동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함으로써 진술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거지의 말로 글을 끝맺음으로써 극적 효과를 높이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였다.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뻐하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뎠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울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뻐하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분현여자고등학교 (부산)

1. <보기>에 따라 이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D]의 '아직'을 통해 화자의 기다림이 지속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B]의 '떨어져 버린 날'이 가정의 상황임을 고려할 때, [C]의 '오월 어느 날'은 그것이 실현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B]의 '비로소'와 [C]의 '하냥'을 고려할 때, [B]의 '봄을 여인'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C]에서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는 모란이 피고 짐이 화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나타낸다.
- ⑤ [C]의 '뻗쳐 오르던'과 '무너졌느니'는 각각 [D]의 '찬란한'과 '슬픔'과 대응되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분현여자고등학교 (부산)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기다림이 오래되고宿命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② ㉡ : 화자의 상실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 모란을 잃은 절망감이 큼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 화자의 서글픈 정감의 깊이를 드러내 주고 있다.
- ⑤ ㉦ : 체념적 마음 상태를 반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분현여자고등학교 (부산)

3.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ㄱ. 수미 상관의 형태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ㄴ. 어순의 도치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ㄷ. 어조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ㄹ.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의 교차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ㅁ. 경어체 어미를 사용하여 부재하는 임에게 직접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ㅁ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ㅁ

분현여자고등학교 (부산)

4. ㉠과 유사한 표현 방법이 쓰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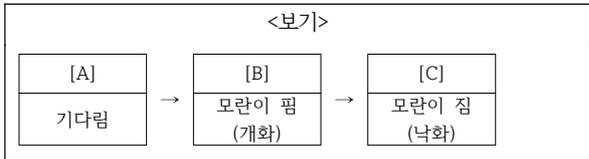
- ① 내 그래들 생각함은 /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 사소한 일일 것이나 /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 그대를 불러 보리라.  
- 황동규, '즐거운 편지'
- ② 신음 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 ③ 내 마음은 나그네요. / 그대 피리를 불어 주오 / 나는 달 아래 귀를 기울이며, 호젓이 / 나의 밤을 새이오리다.  
- 김동명, '내 마음'
- ④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 김수영, '풀'
- ⑤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 달라.  
-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뺨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5.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직'은 화자가 [A]의 상황에서 [B]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의 봄'은 [B]만을 봄이라고 여기며 '모란'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삼백예순 날'이라는 구체적 숫자를 통해 [C]로 인한 비애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찬란한 슬픔의 봄'은 [B]가 환기하는 봄의 찬란함 속에 [C]가 환기하는 봄의 상실감이 공존한다는 화자의 역설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 ~ [C]가 반복되는 순환구조를 통해 [C]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6. 뒷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순을 도치하여 상황의 긴박감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르테요', '느네다' 등의 경어체를 사용하여 여성적 어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똑똑', '비로소' 등의 부사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처음 제시된 내용을 변형하여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구조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유성여자고등학교 (경북)

7. ㉠ ~ ㉤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 2개)

- ① ㉠ : '똑똑'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 '잠길 테요'를 수식하는 '비로소'는 화자의 자기희생을 보여주고 있다.
- ③ ㉢ :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마는 것은 모란의 소멸로 화자가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다.
- ④ ㉣ :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를 통해 화자가 모란을 삶의 보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 '아직'이라는 시어를 통해 '봄'을 기다리는 화자의 막막함과 지루함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인항고등학교 (인천)

8. 뒷글에서 느껴지는 운율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전통적 운율인 4음보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였다.
- ② '-르테요'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 ③ '모란'이라는 말을 되풀이하여 일정한 리듬을 형성하였다.
- ④ 수미 상관 구조를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운율을 형성하였다.
- ⑤ 'ㄴ, ㄹ, ㅁ, ㅇ'의 울림소리를 사용하여 물이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의 운율을 형성하였다.

인항고등학교 (인천)

9. 뒷글에서 화자는 '찬란한 슬픔의 봄'에서 모순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 (1) '찬란한 슬픔의 봄'에 나타난 표현법을 쓰시오.
- (2) 모순된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

<조건>

1. '봄은'을 주어로 시작할 것.
2. 60자(띄어쓰기 포함) 이내의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1-(1) 모란이 피기까지는

1.③

▶'비로소'와 '하냥'은 모란이 떨어져 봄을 여인 것과 관련된 수식어이므로 '봄을 여인'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음.

2.⑤

▶㉔ : 기다림의 의지적 표현을 직접 표현한 것임.

▶응, 헛갈리지 마!◀

자조 vs 체념 vs 한탄 (★)

\*자조: 자기를 비웃음.

\*체념: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함.

\*한탄: 원통하거나 누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함.

3.④

ㄷ: 어조의 변화는 없음, ㄹ: 독백이지, 직접 말하는 형식이 아님.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시의 전개 방식 (★)

ㄱ.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ㄴ.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화자가 직접 이동

ㄷ.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ㄹ.대립적 전개

ㅁ.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슷

ㅂ.선경후정: 경치+정서

ㅅ.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해당 없음.

2. 도치법:

일반적인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꿔 강조하는 표현법.

(사과를 먹다 → 먹다 사과를)

3. 시적 어조(★)

:시적 자아에 의해 표현되는 목소리의 특징.

→시의 분위기나 정서 및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음

1)청자의 유무: 독백조, 대화조

2)화자의 유형: 남성적, 여성적 어조

3)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명령, 찬양, 의문, 청유 등

4)화자의 감정 상태: 걱정적, 영탄적, 관조적, 애상적, 긍정적 등

5)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학적, 반어적 등

4. 상승 이미지 vs 하강 이미지 (★)

\*상승 이미지: 피어나는 꽃, 떠오르는 태양 등

(열정, 희망, 활발 등 주로 긍정적)

\*하강 이미지: 내리는 비 혹은 눈, 떨어지는 낙엽 등

(이별, 슬픔 등 주로 부정적)

4.②

▶②의 '외로운 눈부심'도 ㉔과 같은 역설임.

① 반어법 ③ 은유법 ④ 대구법, 대조법

◆주제 저장소◆

① <즐거움 편지>: 사랑의 간절함과 불변성에 대한 고백

②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③ <내 마음>: 사랑의 기쁨과 애달픔

④ <풀>: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

⑤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죽음을 넘어선 열정적인 삶의 추구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반어법 vs 역설법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

꼼)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2. 직유법 vs 은유법 (★★★)

ㄱ.직유법: A는 B와 같은 (사과 같은 얼굴)

ㄴ.은유법: A는 B이다 (우리의 지폐는 박물관이다)

3. 통사 구조의 반복 vs 대구법 (★)

ㄱ. 통사 구조의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바람도 없는 공중에~누구의 발자취입니까? / 지리한 장마 끝에~누구의 얼굴입니까?)

ㄴ. 대구법: 비슷한 어구를 짝지 지어 놓는 것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통사 구조의 반복 중에서 두 어구가 바로 짝을 지어 나타내면 대구법이 됨.

5.⑤

▶모란이 피어서 지는 것으로 끝나지 피고 지는 것이 반복되는 것은 아님.

6.①

▶'나는 아직 기돌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처럼 어순 도치는 있으나 긴박감을 전달하는 건 아님.

▶넣어둬, 패턴 공략◀

<섬세함&부드러움>은 '경어체'를 사용할수록 깊어지며 '명령형' 혹은 '단정적' 말투일수록 멀어진다.

7.②⑤

▶㉔: '비로써'는 자기 희생과 상관없음. ㉔: '아직'은 기다림의 의지적 표현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음성 상징어 (★★★)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